

“기업 경영환경 개선·일자리 창출에 최선”

조창진 도상의협의회장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에 추대된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도내 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강원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강원경제를 이끌어 가는 회원사들의 이익 증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중점적으로 풀어 나갈 도내 현안에 대해 “도내 7개 상의와 협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강원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바꿔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강원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18개 시·군,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안흥 출신인 조 회장은 세명대 경영학과, 상지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도건설협회장, 도육상경기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평통 강원부위원장, G1 강원민방 회장, 도경찰청 발전위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가사·민사조정위원,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가족은 부인 원연씨와 1남1녀다. 원주=김보경기자 bkk@

새의자

조창진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



조창진(65)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도내 상공인들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대북사업은 물론 준비과정부터 적극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 안흥 출신으로 세명대 경영학과, 상지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민주평통 강원부위원장, SG건설회장, G1강원민방 회장, 원주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주석